

IG건설(주)IG전자정보통신 단말통합연구소 신축공사현장

2004년을 시작하는 깨끗하고 편안한 현장



▲ 박 흥 원 소장

2004년 처음으로 방문하는 현장이 어디가 될까?
이 기사를 쓰는 이에게 있어 가장 궁극한 부분이다. 본지가 올 한해 좋은 일만 있으려는지 깨끗한 무재해 현장이 소개되었다.

요 몇 일 사이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겨울다운 매서운 날씨를 선보이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나섰다.

현장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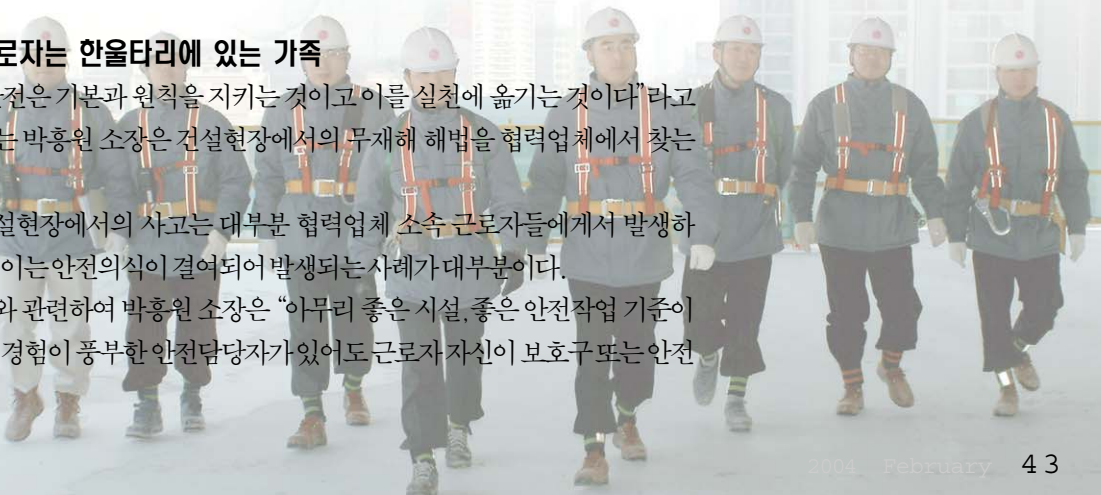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IG건설 IG전자정보통신 단말통합연구소 신축공사 현장(박흥원 소장)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지하 4층 지상 8층 건축공사 현장으로, 2002년 11월에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무재해 현장이다.

근로자는 한울타리에 있는 가족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박흥원 소장은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해법을 협력업체에서 찾는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는데, 이는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흥원 소장은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안전작업 기준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근로자 자신이 보호구 또는 안전



건설안전리포트

시설의 필요성을 모르고,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할 의지조차 없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마인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근로자들의 안전마인드를 변화시키는데에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작업팀별 안전교육에서부터 이곳 현장의 안전활동은 시작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전 활동으로 인간적인 접근방식을 꼽는다.

예전의 지시형, 통제형으로는 요즘 현장에서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발감에 따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먼저 출근하여 출입구에서 눈 인사하기, 현장에서 경어쓰기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며 선행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근로자의 생일을 챙겨주는 현장으로 만든다는 박홍원 소장의 말에서 직장동료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생각하는 현장으로

이곳 현장에서는 생각하는 안전을 수행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생각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근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편안해질 수 있는지의 생각에서 안전은 시작된다.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는 전중배 대리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가끔 현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오히려 안전작업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생각하는 안전이 절실하다고 한다.

또한, 안전시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보다 깨끗하게,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창안해내는 곳이 이곳이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안전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활동기법이라는 것이다.

함께 깨끗한 일터 만들어

IC전자정보통신 단말통합연구소 신축공사현장은 어느 건설현장같지 않게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취재하는 동안 뒹구는 자재 하나 볼 수 없을 만큼 안전의 기본인 정리 정돈이 참으로 잘된 현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관할 구청에서 2003년 12월에 환경모범공사장으로 지정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현장으로 거듭난 데에는 박홍원 소장을 비롯해 직원과 근로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뒤에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C(Clean, Comfortable, Creative)활동의 결실이라고 생각되었다.

여기에 기초를 두어 각 층마다 청소도구를 비치하고 작업 중 발생된 부산물을 즉시 해당 근로자가 청소하도록 하며, 작업종료 10분 전 작업장 청소 생활화와 매주 금요일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깨끗한 현장을 유지시키는 비결이라고 한다.

인과 결부됨을 강조하며,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목표가 동일선상에서 성취할 것과 이를 통해 함께 레벨 상승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모든 직원과 근로자들의 만족이 이 현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인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박홍원 소장은 앞장설 것이며,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2004년이 되자고 덧붙인다.

끝으로, IG건설 IG전자정보통신 단말통합연구소 신축공사현장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최고의 현장으로 준공하여 함께 웃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밖에 안전활동에 대해

이 밖에 이 현장에서는 3인 1조의 일일 안전순찰당 직조를 편성하여 현장의 불안전 요소를 발굴·시정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층별·구역별·부위별 안전관리 책임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전 안전작업 절차서를 작성케 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 중, 삼중의 안전으로 2004년의 목표인 무재해 준공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이를 위해 단 한 건의 아차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태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원 소장은 직원에게 직장은 개

〈최종덕 기자〉